

## 구강점막에 발생하는 Potentially Malignant Disorders의 이해

고 흥 섭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

구강점막질환 진료의 어려움은 진단과정의 어려움, 난치성 그리고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특히 구강 편평태선과 구강 백반증 병소는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암 병소로 분류된다. 최근 'oral precancerous lesions'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oral potentially malignant disorders (OPMD)'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질환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지난 40여년 동안의 연구결과는 OPMD에 포함되는 질환의 분류, 진단 기준 및 평가법에 뚜렷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구강 편평태선의 경우 '1978년 진단기준'이 제안되었지만 그 적용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한 진단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2003년 진단기준'이 활용되고 있다. 이후 이 진단 기준에 개선점이 제안되었지만 현재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진단기준의 발전은 구강 편평태선과 구강 태선모양 병변을 구분하게 해 주었고, 이는 해당 질환의 악성 변화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구하고 예후를 추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구강 백반증의 경우 '1978년 정의와 진단기준'이 제안되었지만 이후 최초의 정의에서 '악성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 병소'와 '명확한 병인이 있는 병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진성 구강 백반증의 대부분은 악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구강 편평태선 및 구강 백반증의 정의 및 진단기준의 변화는 보다 발전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해당 질환의 예후추정을 가능하게 하여 주지만 오늘의 토의를 해당 질환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변화는 증거 중심의 진단 및 치료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변화이며 동시에 특정 진단을 가진 기존의 질환을 단일 질환이 아닌 하나의 큰 표현형으로 보고 그 기저에 있는 여러 병태생리 기전의 차이에 따라 질환의 차이를 구분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맞춤형 의료와 정밀 의료로 가는 시작점이다.

학력 및 경력

-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
- \*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
- \*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 회장
- \* 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 정회원  
Oral Diseases (Wiley) Associate Editor